

◆ 성모승천대축일
Solemnity of Assumption of Mary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가 ‘원죄없이 잉태’ 되신 분으로 ‘거룩한 동정녀’이며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총명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아 ‘승천’ 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 ‘원죄 없는 잉태’가 구원의 첫 열매인 성모 마리아 신비의 출발점이라면 하늘에 올림을 받은 ‘승천’은 성모 마리아 신비의 종착점이다. 원죄 없이 태어난 분은 원죄에 물든 이들과 똑같이 죽음을 맞아 부패의 무덤에 머물 수 없다. 따라서 성모 승천은 마리아가 근원적으로 구원받은 분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장차 우리도 받게 될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므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표지이다. 주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승천과 마리아 승천은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는 신적 권능으로 스스로 승천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느님 능력에 의해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았다. 그래서 성모 승천을 ‘몽소승천’(蒙召昇天), ‘피승천’(被昇天)이라고도 불렀다. 성모 승천은 마리아가 구원 역사 안에서 거룩한 동정녀이며 하느님 어머니로서 지니는 ‘특권’이다. 그러나 이 특권은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자신이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이다. ‘성모 승천’이 신앙 교리로 선포된 것은 반세기에 불과하다. 교황 비오 12세(1939~1958년 재위)는 1950년 11월1일 희년의 ‘모든 성인의 날’ 축일을 맞아 사도적 헌장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Munificentissimus Deus)을 통해 “원죄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는 지상 생애의 여정이 끝난 다음 그 영혼과 육신이 천상의 영광 안에 받아들여졌다”며 성모 승천을 교의로 선포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도 “원죄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시어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는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시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올림을 받으시고, 주님께 천지의 모후로 들어 높이지시어 군주들의 주님이시며(묵시 19,16)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 아드님과 더욱 완전히 동화되셨다”(「교회헌장」 59항)고 고백했다. 또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거룩한 동정녀의 승천은 당신 아들의 부활에 특별히 참여한 것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앞당겨 실현한 것”(966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경에는 십자가 아래 계신 마리아(요한 19,25-27)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오시길 기다리는(사도 1,14) 모습 이후 성모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그러나 초기 교회 공동체부터 성모 마리아가 지상생활을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고 믿어왔다. 이 전승을 뒷받침하는 한 사건이 있다. 칼체돈 공의회(451년)를 소집한 로마의 마르치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의 세레자 유베날리에게 성모의 유해를 인도할 것을 요청했지만 성모가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콘스탄티노플(현 이스탄불) 인근 발케르네에 성모 승천 기념 경당을 세웠다. 교회는 4세기께부터 성모 승천 축일을 기념해왔다. 5세기 초부터 예루살렘에서는 해마다 8월 15일이면 ‘하느님의 어머니(Teotokos)’ 축일을 지냈다. 이 축일은 6세기께 ‘성모 안식 축일(Dormitio - 일시적으로 잠에 떨어짐)’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8세기에 들어 ‘성모 승천 대축일’로 확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1970년 「미사경본」 개정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은 전야 미사가 있는 유일한 마리아 축일이 돼 마리아 축일 중 가장 중요한 날로 자리잡게 됐고, 한국 교회는 이 날을 의무 축일로 지내고 있다. 한편 한국 천주교 용어위원회는 2000년 「가톨릭교회 공식 용어집」을 간행하면서 ‘몽소승천’, ‘피승천’, ‘소천’ 등의 말이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성모승천’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 마리아의 노래
Magnificat

라틴어로 마니피캇(Magnificat)이라 불리는 ‘마리아의 노래’는 구원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찬미가입니다. 교회는 전례적으로 저녁 기도 에 이 ‘마리아의 노래’를 바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첫째 부분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마리아의 개인적 감사의 노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루가 46-50절). 여기에는 하느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열거합니다(루가 48-49절). 둘째 부분은 하느님께서 마리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하느님 백성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루가 51-56절). 마리아의 노래’에서 묵상할 것 중에 하나는, 마리아께서 깨달은 하느님을 향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새로운 시각이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만 여겨,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하느님께서 비천한 여종인 당신 자녀의 처지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루가 1,48-49).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루가 1,51). 우리가 마리아에게 배워야 할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 자신을 비천하고 낮은 사람으로 처신한 것입니다(루가 1,48). 그러나 교만은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외면하게 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교만은 자신의 실상을 허황되게 평가하고 진실에 눈멀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만이 옳고, 남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겸손한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섬기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낮추어 하느님의 권능에 복종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1베드 5,5-7).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쁨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교를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의 목자요 임금이신 하느님, 친히 주님의 일꾼(최 보니파시오 주교)를 거룩한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이 굽어보시어(최 보니파시오 주교)가 말과 모범으로 신자들을 보살피다가 말은 양 무리와 함께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본당소식

● 오늘은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 오늘 미사 중 첫영성체 예식이 있습니다. 성체성사의 은총과 신비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당 창립 기념접시 주문 안내

본당 창립 기념패를 원하시는 교우들 위해 주문 판매 할 예정입니다.

예상가는 약 \$ 60입니다.

▶문의: 사목총무 한택중 (☎519 883 8488 x 1)

▶마감: 8월 23일
본당 게시판 및 굿뉴스 클럽 참조 바랍니다.

● 온타리오 한인 성당 합동 신앙대회

일시 : 9월 5일(토) 오후 1시 미사

장소 : Midland Martyrs Shrine

▶문의: 사목총무 한택중 (☎519 883 8488 x 1)
본당 굿뉴스 클럽 참조 바랍니다.

● 본당 창립 기념 신앙 특강

일시 : 8월 30일(주일) 오후 5시 미사 중

주제 : 신앙인의 자세

강사 : 이현하(야고버) 종신부제

● 견진성사 신청안내

오는 9월 20일(주일) 본당 창립기념미사 때 견진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견진교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오니 구역장들께서는 견진 대상자를 파악해 주시고, 총구역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여성 꾸르실료 주말 신청 안내

일시 : 10월 15일(목) - 10월 18일(주일)

장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신청마감 : 9월 15일 (화)

참가비 : \$ 320.00

문의: 율뜨레야 간사 (김현태 요셉)

● 영명축일 명단을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누락 및 정정이 필요한 교우들은 명단에 써주십시오.

● 성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PARISH LIFE CENTRE 기금 마련을 위해 ST. ANTHONY DANIEL 성당 주최로 우리 본당 성가대와 EASTWOOD HIGH SCHOOL 합창단이 공동으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11월 13일 (금) 7시 30분

티켓 : 성인 \$ 10, 어린이 \$ 5

문의 : 문혜라(크리스티나) ☎ 519 208 0565

● 소성당, 교육관 출입문 이용 안내

전자키 패스워드는 사목회장, 부회장, 총무, 관리분과장에게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 9월 안내 담당은 워털루 3구역입니다.

▶ 10월 : 워털루 2구역

▶ 11월 : 청소년부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워털루 2구역 : 9월

▶ 워털루 3구역 : 10월

● 평일미사에 많은 참례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참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성당 출입문을 전자키로 교체했으니 많은 교우들이 성체 조배를 생활화하기를 바랍니다.

● 사제 하계휴가 관계로 금주 수, 금 미사 없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2009년 8 월 9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692.00				
교무금 : \$ 810.00 182(40) 201(20) 202(50) 205(300) 206(20) 207(20) 214(50) 216(20) 219(50) 222(50) 224(100) 227(20) 230(50) 233(20)				
감사금 : \$ 60.00 246(60)				
성전건립 : \$				
(성모동산 누계 : \$1985.00)				
합 계 : \$ 1562.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2009-35호

2009. 8. 15 - 16.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전례

해설 정경래 차주 해설 이정숙

성가

입당 (259) 성모 승천 (1.2절)
봉헌 (249)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성체 (174) 사랑의 신비
퇴장 (259) 성모 승천 (3절)

화답송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우리가 기뻐하네.◎

영성체송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네.

	독	서
8월 16일	고영호	고기숙
8월 23일	정경래	정문진

	봉	헌
8월 16일	김현태	김진선
8월 23일	고영호	고기숙

	복	사
8월 16일	안아림	김건우
8월 23일	최예슬	김근영